

문 10: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답 10: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 함이있게 지으사 모든 생물을 주관하시게 하셨다.

성경적 근거: 창세기 1:26-28, 31; 골로새서 3:10; 에베소서 4:24

질문 1: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무엇을 따라 지으셨나?

질문 2: 하나님은 사람의 무엇을 구별하여 지으셨나?

질문 3: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질문 4: 하나님은 다른 어떤 생물이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것이 있는가?

질문 5: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공유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질문 6: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무엇을 주관케 하셨나?

질문 7: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만물을 주관할수 있는 것인가?

창세기 2 장을 읽고 다음 추가질문에 답을 하라:

질문 8: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어떤 상황속에서 사람을 만드셨나?

질문 9: 하나님은 아담을 어떻게 지으셨나?

질문 10: 아담이 지어진 방법과 다른 생물이 지어진것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질문 11: 하나님은 아담에게 무엇을 불어넣어 생령이 되게 하셨나?

질문 12: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 무엇을 창설하셨나?

질문 13: 하나님이 창설하신 동산에는 무엇들이 있었나?

질문 14: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동산에서 무엇을 하도록 했나?

질문 15: 하나님은 아담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셨나?

질문 16: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

질문 17: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있지 않도록 무엇을 하셨나?

질문 18: 하나님께서 여자는 어떻게 지으셨나?

질문 19: 하나님께서 남녀중 누구를 먼저 지으셨나? 그 이유는 무엇인가?

질문 20: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방법의 차이를 생각해 보라. 그 차이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정하셨는데 왜 그렇게 차별되게 창조하셨을까? (엡 5:23-33)

**질문 21:**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에게 다른 기능들을 주셨는데, 그 기능들은 무엇인가?  
(창 2:20-24)

**설명:**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지어졌다는 것이다. 그럼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영이라고 성경을 말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육체가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

사람과 천사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일수 있는 독특한 피조물이다. 사람과 천사들외에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사람과 천사는 유일한 존재들이다. 그러나 사람은 천사보다 더 귀한 것을 위해서 만드셨다.

그리고 사람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피조물은 없다. 천사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는 아니다. 오직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다. (갈 4:1-7) 또한 사람은 이렇게 귀한 존재이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첫째**,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소유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사고를 허락하셨다. 사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기에 그것들을 다스리기에 필요한 지식을 주신 것이다.

**둘째**, 하나님은 사람이 공의를 알고 실천하도록 지으셨다. 하나님과 같이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할줄 알도록 지으셨다.

**셋째**,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도록 지으셨다. 사람을 다른 모든 피조물로부터 분별하신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그리고 사람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어떤 피조물과 분별하시었고 또 모든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셨다.

하나님과 사람이 공유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 인격적인 관계이며 또 하나님의 속성에 속하는 지식, 의로움, 거룩성들이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원죄 전에는 많이 공유하였으나 원죄 후에는 적게 공유하게되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게 하신 것은 창조주의 고유적 권한과 권리로 되었던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함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의 영장이 될수있는 모든 조건과 능력을 부여하셨음을 말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이며 또한 남자와 여자는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방법으로 지으시지 않으며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와 기능이 다름을 나타내신 것이다. 구별하셨지만 남자와 여자는 또한 한 몸이 되도록 만드셨다.

남녀가 다르게 지음을 받으셨다는 것은 어느 누가 더 크고 작은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다르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 구별됨이 하나님의 정해놓은 질서와 목적이 뚜렷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알고, 따라야 한다. 남녀를 구분하신것에 대해서는 잠시후 새롭게 언급하기로 하자.

창세기 2 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 사람을 만드셨는지를 알아보도록 한다. 4-5 절 말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다.

그럼 이 내용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가? 흥미롭지 않은가? 모든 창조물들이 정원사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이 아닌가? 하나님은 사람이 있기까지 어떤 식물도 자라나지 못하도록하셨다. 그렇다면 과연 사람은 어떤 존재인 것인가?

8 절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놀랍지 않은가?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던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셨고 사람을 위해 너무도 귀한 선물을 준비하셨던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미리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셨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지으심에 따라 에덴 동산의 주인으로 나타나게된 것이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장면을 통해 우리의 머리속에 떠오르는 한쪽의 그림은 없는가? 요한복음 14:1-3 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다! 예수님께서서는 지금도 우리의 영원한 에덴을 준비하시고 계신다. 이 영원한 에덴을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천국이라고 부른다.

창조로 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귀한 곳을 예비하셨고 또 예배하심을 보여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잊지않고 기억하고 계신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했다. (고린도전서 5 장 17 절) 예수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분주하게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 것이다. 우리는 오직 우리 주님되시고 가이드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 뿐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창조속의 그림인가?

사람은 하나님께 아주 귀한 창조물로써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조성되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 2:7)

창세기 2:7 은 사람을 지으신 환경을 너무도 멋지게 표현하고 있다. 사람이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기 전에는 사람에게 생명이 없었다고 기록하고있다. 생명은 하나님의 생기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사람은 죽은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없었으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지 못했을 것이다. 오직 살아있는 자만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자이다.

창세기 2:7 절의 창조는 오직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다. 천사들은 육체가 없고 동물들은 하나님의 생기가 없다. 동물은 오직 호흡을 할수있는 기능만 소유하고 있을 뿐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지 못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특별한 품성과 속성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손수 빚으시고 생명을 주셔서 그와 동행하며 동거할 수 있도록 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지만 참으로 놀라운 것은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도록 하셨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의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후에 단 한개 하지 않아야 될 것을 명령하셨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그가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지말라하신 것을 아담은 하고 말았던 것이다.

하나님은 왜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 죄에 대해 공부 할 때에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여기서 한가지 꼭 잡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은 바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음을 증명한다. 다시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도덕적 그리고 영적 책임을 맡길만한 인격체로 대했던 것이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최고로 높여서 세우셨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과 통할수 있는 존재로 말이다.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위치에 까지 사람을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그러기에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 분명히 다르게 지으셨는데 하나님은 동물들에게 그런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 동물들은 그저 자신의 본능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배고픈 동물이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다고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다.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악과를 금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것이기에 그 말씀대로 살았어야 했던 것이다.

이제 다시 남자와 여자의 창조로 돌아가보자. 하나님은 남자인 아담을 먼저 만드셨다 그리고 아담이 혼자 있는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다. 과연 아담은 혼자 있었을까? 아담과 함께했던 모든 동물들이 있었고 또 늘 동행해주셨던 하나님이 계셨다. 그렇다면 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했을까? 하나님이 실수를 하셨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럼 왜 좋지 못했던 것일까를 알아보자.

창세기 1:27-28: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담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명령은 땅을 다스리라는 명령보다 먼저 주셨다. 그런데 아담이 홀로 어떻게 그 명령을 수행할수 있을까? 아담은 홀로 생육할수도 번성할수도 없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수 없는 상황이 된것은 좋지 못하다라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주셨을때에는 그것을 수행할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조치하셨을 것이다.

동산에 다른 동물들이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담에게 꼭 맞는 돕는 배필이 없었다고 하셨다. (창 2:20)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꼭 맞는 돕는 배필을 준비하셨다. 그리고 아담은 돕는 배필인 하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할수있었던 것이다.

실질적으로 여자는 아담에게 완벽한 도움이었다. 그래서 여자를 만드셨다. 그 과정은 이러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때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창 2:21-22)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여자는 남자로 부터 나온것이다. 사실 좀 이상하게 느껴질수도 있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며 지혜인 것이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자신의 지혜대로 일을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와 순서를 잘 생각해봐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질서와 순서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것을 잘 깨달아야 한다.

에베소서 5:22-33 절을 읽어보라.

확실하게 눈에 들어오는 내용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이 남편이 되는 남자를 아내가 되는 여자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질서이다. 이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에베소서의 본문을 통해 쉽게 알수있다.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들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묘사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관계를 잘 깨닫고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심에는 남자와 여자에게 다른 기능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로 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아내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 이 말은 남편이 가정의 머리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돕는 배필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돕는 배필의 도움이 없이는 남편은 가정의 기능을 발휘할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수 밖에 없다.

하나님은 많은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아담은 각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 하나님은 매우 만족해 하셨다. 그 후 여자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아담은 여자에게도 이름을 주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역시 매우 만족하셨다.

돕는배필이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에베소서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힌트를 얻을수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한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 (경외)해야 한다. 그러므로 돕는배필의 중요한 기능은 남편을 존경하여 남편을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의 사랑은 전하는 것이다.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것 같이 해야한다. 그렇게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존중과 사랑은 함께하는 것이다. 그리고 존중과 사랑이 오고 갈때에 마침 둘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을 함부로 본다는 것과 같으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님의 의미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셨다. 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주의 뜻하신데로 살아가자.